



나비아 공동가자 꽃차 마시러

오늘 예술의 거리 축제

지난 27일부터 매주 금요일 광주시 동구 예술의 거리에서 열리는 예술문화축제 '나비아 공동가자'가 3일 오후 3시부터 '꽃차'를 테마로 진행된다.

'꽃차' 테마에 맞춰 꽃차 시음체험, 전통 떡메치기체험, 자화상조각체험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함께 열린다. 또 민요, 부도춤, 코메디 마임, 퍼포먼스 등이 새롭게 진행된다.

예술의 거리가 간직해 온 광주예술보물창고 스텝프렐리 '공동유람'에서는 다양한 보물들을 만날 수 있다.

예술의 거리 마당 무대에서는 세가지 컨셉으로 공동에 온 예술가공연과 인물재현 퍼포먼스가 진행된다. 일렉바이올린, 그룹댄싱 등 현대공연마당과 민요, 성악, 부채춤, 보컬 등 잔치마당, 그리고 포크콘서트, 호남검무, 교방무, 해금, 금관앙상블 등 협연마당으로 나눠 진행된다. 문의 062-223-0131.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작은도서관 가자 콘텐츠 기증하러

광주문화재단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서영진)은 도심속 복합문화복지공간인 '문화예술작은도서관'에 비치, 시민과 나눌 수 있는 콘텐츠를 기증받는다.

지난달 13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2층에 문을 연 문화예술작은도서관은 지역민에게 독서문화향유 기회와 휴식을 제공하는 공간이다. 시, 소설, 동화 등 서적을 비롯해 광주문화재단이 발행한 다양한 홍보물 등 모두 2300여권의 도서가 비치돼 있다.

광주문화재단은 보다 풍성한 문화 자료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문화예술 전공 학술도서, 문화예술교양도서, 문화예술관련 정기간행물 및 연구보고서, 문화예술 멀티미디어, 시청각 자료(도록, 음반, 사진 등) 등을 기증받고 있다.

모든 기증자에게 인수증을 발급하며 기증한 자료에는 기증자의 이름을 기재한다. 특히 누적 기증물품이 500개 이상이 된 기증자에게는 개인서고를 설치해 줄 예정이다. 문의 062-670-7968.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투병 중에 전시회를 연 김재군 전 의원은 지난 30년 동안 무등산을 오르고, 그리면서 큰 위안을 받았다.

무등산은 위로였다

투병중 전시회 연 김재군 작가...10일까지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어릴 때 공모전 휩쓸었지만

어머니 만류에 정치학 선택

서른 즈음 다시 붓 잡아

시로, 그림으로 무등산 담아

김재군(63) 작가가 다시 붓을 든 건 서른 살 무렵이다. 그는 어린 시절 공모전에 나가면 상을 휩쓸 정도로 곧잘 그림을 그리는 학생이었다. 어머니의 만류가 있었다. "화가가 되면 못 먹고 산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결국 그는 정치학을 선택했다. 이후 80년대 초반 육군3사관학교 교수를 그만두고 다시 그림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 전시장마다 찾아다니면서 작품을 감상하고, 무작정 작가들을 좇아다녔다. 김 작가는 당시 광주사생회를 이끌던 고(故) 오승운 화백을 비롯해 오건택 전 광주시립미술관장 등과 함께 스케치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지난 31일 김 작가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는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전시장에서 그를 만났다. 그는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한 무등산

은 광주 사람들에게 참 고마운 산"이라며 "그동안 수백 번 무등산을 올랐다"고 말했다.

지난 2012년 국회의원을 그만 둔 이후 그는 화구를 쟁겨 무등산을 올랐다. 공직 생활을 그만 두고 모처럼 찾아온, 큰 즐거움이었다. 자연 속에서 사물을 보고, 관찰하고, 표현하는 것이 너무 행복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건강검진에서 불현듯 위암 판정을 받았다. 그때도 무등산을 올랐다.

그리고 지난 1월 수술을 앞두고 '무등을 그리며'라는 시 한편을 썼다.

"만년산 너머 무등산정에는 흰 눈이 쌓이는데/ 매운 삭풍을 견뎌내는 한그루 외로운 소나무/ 언제 다시 올라볼까 늘상 바라보던 산이여// 천지간에 홀로 닿기 아득하다 하겠으나/ 화음의 빛나는 눈길, 꿈길처럼 선연하다/ 어서 일어나 걸어보자 天·地·人(천지인) 세 봉우리."

입석대와 서석대는 물론 무등산에 핀 꽃, 오랜 세월을 이겨낸 충효동 왕버들 나무, 광주호에 비친 무등산의 자연, 무등산 옆에 자리한 금곡 마을의 정취 등 무등산과 무등산권 주변의 사계가 한국적 색채로 김 작가의 작품에 담겼다. 또 현장에서 붓펜과 수채물감으로 담아낸 풍경들이 인상

적이었다. "잠시 학동에 살 때는 매일 무등산을 올랐어요. 항상 무등산을 보고, 오르며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낮이고 밤이고 산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고즈넉한 산책로에 들어서면 자연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죠. 광주 시민들은 참 복받았어요. 무등산권 지역이 남도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림을 다시 그릴 수 있을까, '무등산을 계속 오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앞섰

다. 초대와 2대 광주시의원, 민선 2~3기 북구청장, 제18대 국회의원을 지낸 그는 "공직 생활을 하면서 많은 그림을 못 그렸던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그는 구청장과 국회의원을 하면서도 시간을 쪼개 작업실에 앉아 그림을 그렸다. 부족한 시간 탓에 한 작품을 완성하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기도 했다. "공직 생활을 안 했으면 나를 자연 속으로 이끈 무등산과 그림에 파묻혀 살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이 뭐냐"고 묻자 "좋은 그림을 1점이라도 남기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시는 '무등을 그리며'를 주제로 오는 10일까지 열린다. 문의 062-575-8883.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화요예술무대·남도소리 상설무대 공연작 확정

광주문화예술회관이 대표 기획 프로그램인 '화요예술무대'와 '남도소리 상설무대' 공연작 16작품을 확정했다.

다양한 장르를 선보이는 화요예술무대에서는 31일 열린 '이 깐똥'의 'The love story'를 비롯해 극단 '동방'의 '어린왕자'(4월 14일), 마일즈의 '마일즈 페스티벌'(5월 19일), 그레이스 앙상블의 '인문학과 함께하는 음악 여행'(6월 16일), A.A.P의 '댄스컬 흑과 백'(7월 14일), 박영렬 재즈 퀸트의 '뷰티풀 러브'(10월 6일), 아시안 발레단의 '정음서의 망부운', 인터내셔널 발레 컴퍼니의 'White ballet' 등을 만날

수 있다.

전통공연을 만날 수 있는 남도소리 상설무대는 모두 8개 작품을 선정했다.

첫 프로그램이었던 '놀음판'의 '악과 무의 만남'을 시작으로 국악실내악단 '향토제'(사진)의 '오월의 꽃'(5월 27일), 가야금연주단의 '가야금과 함께하는 아리랑 공연'(7월 29일), 풍물연희예술단 '광대'의 '빛고을 국정어전'(10월 28일), 한국판소리보존회 광주지부의 '판소리 보존회 유파 발표회'(11월 25일), '현의 노래'의 '팔도 민요 페스티벌'(12월 23일)이 공연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기억의 잔상

갤러리S 이종희 초대전...30일까지

굵은 붓질로 캔버스에서 춤추는 화려한 색들이 인상적이다. 과감하면서도 시원하게 오가는 색들은 함께 어울어지면서 다양한 형상들을 만들어낸다.

신양파크호텔 1층에 자리한 갤러리S는 올해 두 번째 기획 초대전으로 오는 30일까지 이종희씨를 초대해 '잔상'(Afterimage)을 주제로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씨의 네 번째 개인전이다.

이씨는 작업 과정 속에서 문득 생각나는 이미지와 색 그리고 허공을 점선, 면 등 기초적인 순수 조형 언어로 표현했다. 과감한 검정색은 먹을 연상하게 한다. 점점이 찍혀 있는 작은 점들과 이미지들은 한국의 오방색처럼 비친다. 이씨는 "기초적인 생각과 물음에서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 가장 잘 설명된 그림"이라고 말했다.

조선대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을 수료한 이씨는 지난 2010년 광주시립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입주 작가로 활동하기도 했다. 문의 010-8618-7668.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배병우에게 듣는 배병우

광주시립미술관 7일 작가와의 만남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조진호)은 오는 7일 오후 2시 미술관 2층 세미나실에서 '배병우 작가와의 만남' 행사를 진행한다.

이 행사는 현재 미술관에서 열고 있는 '배병우-섬과 숲 사이'전의 부대 행사로 배병우 작가의 삶과 예술세계를 작가에게 직접 들을 수 있다.

이번 전시에는 개막 10여일 동안 1만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으며, 특히 휴일에는 천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고 있다.

배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소나무와 남도의 섬풍경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번 전시는 오는 6월 21일까지 계속된다. 문의 062-613-7100.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6일부터 광주시민인문학 정규 강좌

'광주시민인문학'이 20기 정기 강좌를 연다. 강좌는 6일부터 내달 3일까지 전남대 정문 앞 카페 노블에서 진행된다. 정규 강좌(오후 7시30분)는 인문학 입문, 문학, 철학, 융복합학, 인문학으로 나눠 진행된다. 월요일에는 명혜영(일문학) 교수가 "생각의 벽"이 된, 뇌의 불편한 진실"을 주제로 이야기한다. 화요일은 심영의(국문학) 교수가 "나를 치유하는 작업, 글쓰기"를 매개로 시민들을 만난다. 수요일은 '베르스송, 결정론이 아닌 인간 자유의 존재성을 말한다'를 주제로 철학 스테디를 한다.

목요일과 금요일은 이진(융복합학) 교수와 명혜영 교수가 각각 "지나사 피렌스", 다르니까 함께 산다"와 "진짜에 대한 욕망-오시모토 바나나 '키친'을 주제로 강의한다. SEMI강좌(월·수 오전 10시 30분, 토·일 오후 2시)에서는 최순옥 강사가 '1인악기 도전 프로젝트-with 기타'(월요일), 임창진 사진작가가 '스마트폰 앵글을 통해 바라보는 사람 세상'(수요일)을 강의한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영화와기와 놀이인문 시간으로 '영화여 다시 한번', '일상 자급자족프로젝트-연극, 콘서트, 미술 등을 체험하는 공간'이 진행된다. 수강료 학생 1만원, 조합원 2만원, 일반회원 3만원. 네이버 카페 '광주시민인문학' 참조. 문의 010-4624-1201. /박성천기자 skypark@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80130-증-2696호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랑**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코피 해결
건강한 다이어트 한방 비만 클리닉

한의학박사 **박상준** 원장
전문인, 전 동신대학교수

진료문의 (062) 227-7575

진료시간
평 일 : 오전 9시 ~ 오후 7시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4시
일요일휴진, 공휴일은 오전진료

KT, 중앙초교, 금남로, 구한미소방서, 동부소방서, 한화생명, 구한미소방서, 동부소방서, 북경랑 한의원